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성부 성자와 성령(찬2/새3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이해원 장로 2부/이석희 장로 3부/송석원 장로 4부/김태원 장로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주와 함께 가리라(Joseph M. Martin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삼서(3 John) 1:1-15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3:22-36

말씀 Message 1, 2, 3부.....Rev. Jonghyun Sung **성종현 목사**

사랑하는 자여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8) 들러리의 기쁨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어저께나 오늘이나(찬133/새135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2026년 주제곡)

*축도 BenedictionRev. Jonghyun Sung **성종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조태현 목사 / Rev. Tae Heon Jo

섬김의 자리

Place of Service

올해도 어김없이 MOD(Ministry Opportunity Day, 사역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총 103개의 사역을 소개하고, 섬기고 동역할 분들을 모신다니 정말 대단한 사역의 지경이 펼쳐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에 많은 사역들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가지 사역들을 섬겨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내 시간과 물질, 수고가 먼저라면 생색이 남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려는 섬김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갈 5:13)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오롯이 '나', '내 것', '내 즐거움'으로만 채운다면 과연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일들을 섬기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기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오해와 감정의 소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의 종 노릇을 서로 한다면 그 순종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4:10) 은사는 성도 모두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회로 주어지는 여러 봉사를 맡아 전심으로 섬기다 보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은사를 발견하는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서 섬기다 보니 새로운 은사를 발견해서 좋고, 서로를 위한 봉사를 통해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 본당 문을 나서면 수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MOD(Ministry Opportunity Day) opens again this year as it always has been. Total of 103 ministries will be introduced, and they are looking for volunteers to serve. It's going to be a truly remarkable event of ministries being unfolded. This is a confirmation that God has allowed many ministries at Bethel Church to grow beautifully. But why do we need to serve in ministries in church community? The biggest reason is that Jesus, who is the head of church, came to earth to serve.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Mat 20:28) Life of believer, as we follow Jesus and become His disciples, could be described as a life of serving others. If I prioritize my own time, resources, and effort in everything I do, it will only lead me seeking recognition and praise. But remembering God's grace and love and live to emulate Him leads to opportunity to get to know Jesus more deeply.

"For you were called to freedom, brothers. Only do not use your freedom as an opportunity for the flesh, but through love serve one another."(Gal 5:13) We have freedom to fill time with whatever we choose to do. However, if we filled it with only 'I', 'mine', and 'my joy', can we truly be happy? As we serve in many ministries, we will inevitably experience good times as well as hard and difficult tasks. When we work with others, won't there be unexpected misunderstandings and emotional fatigue? But, in response to His Word, if we serve one another through love, I believe that God will rejoice in our obedience. We will be filled with His rejoicing that cannot be compared.

"As each has received a gift, use it to serve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God's varied Grace."(1Pe 4:10) Spiritual gifts are given to all believers. We don't know exactly how many spiritual gifts will be given to us. However, as we serve in various opportunities in the church community, we rejoice in discovering hidden spiritual gifts in us. This is not about serving to receive recognitions for doing something you like to do. As we serve according to various graces, we will be happy to discover new spiritual gifts and joy in serving others in our community.

Today, many ministries are waiting for you as you go out from main sanctuary after the worship. I invite all of you to join them in the place of service, following the footsteps of Jesu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성종현 목사

사랑하는 자여

요한삼서 1:1-15

적용하기



■ 적용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찬133/새135장)

인터뷰
2026 신입 사역권사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질문: 1.임직 소감 2.가족 사항
3. 마음에 새기는 성경구절



강안젤라 권사

1. 제게 맡겨 주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깊어 그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져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배우자 윤성문 성도

3.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시 62:1-2)



구형숙 권사

1.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2. 배우자 구윤모 장로, 1남(교진), 1녀(혜진)

3.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김기옥 권사

1. 권사의 직분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무릎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권사의 직분으로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말보다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제 손보다 무릎이 먼저 움직이게 하시며,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2. 배우자 김정훈 집사, 1녀(단비), 1남(운수)

3.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김선희 권사

1.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배우자 오세욱 집사, 1남(Daniel) 1녀(Rachel)

3.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김안젤라 권사

1. 건강의 여러 문제가 일어난 차에 직분을 맡게 되었지만, 주님께 맡기며 은혜와 순종으로 사역이 일이 아닌 섬김의 기쁨이 되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2. 배우자 김재호 집사, 2녀(그레이스, 세라)

3.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김혜란 권사

1. 영적 고아와 같았던 저를 만나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2. 배우자 김정우 집사, 1남(재운)

3.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1:6)



김혜준 권사

1. 부족한 저희 가정에 보여주신 영혼 구원의 기적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2.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직분을 잘 감당하게 기도합니다.

2. 배우자 김정민 집사, 1남(케니)

3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박경숙 권사

1. 권사라는 직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족함 없이 이끄시어 주님의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 배우자 김성귀 집사, 1남(진형), 1녀(진하)

3.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3)



박수미 권사

1. 한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2. 배우자 이경진 집사, 2남(Taek, Daniel)

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박지은 권사

1. 교회의 영적 어머니로 말씀과 기도를 생명의줄로 여기며 헌신하는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 배우자 황인수 집사, 1남(준하), 1녀(서윤)

3.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박현진 권사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미 은혜가 예비된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저라는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배우자 남승우, 1남(동후), 2녀(서윤, 연후)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배은섭 권사

- 한없이 부족한 제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으로 섬기며,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단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 배우자 이성수 집사, 1녀(정연), 1남(강연)
-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5)



송이영 권사

- 두렵고 떨리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 배우자 이세웅 집사, 2남(석준, 채준).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안예진 권사

-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간증하길 소망합니다.
- 배우자 김성균 집사, 2녀(유민, 다민)
-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오경희 권사

- 사역권사로 세워 주셔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맡겨 주신 사명 앞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순종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 1녀(조선영)
-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8)



윤경희 권사

-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며 참을 수 있는 마음을 1년 동안의 사역 훈련을 통해 길러 주소서.
- 배우자 윤영철 집사, 2녀(Anne, Heather)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1-3)



이은영 권사

- 신임권사직은 마음안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주체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배우자 전창식 집사, 2녀(아인, 이든), 1남(필리)
-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은주 권사

-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 배우자 이동훈 집사, 1남(훈), 1녀(하나)
-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조은정 권사

- 그동안 해오던 선택적 사역이 아닌, 이러한 순종적 사역을 통해 '섬김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고, 이 직분을 통해 나의 신앙의 깊이를 되짚어 보며,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 배우자 하재영 집사, 2남(Andrew, David Jr)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일에 기도와간구로 너희 구할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주경야 권사

- 비록 바쁜 직장 생활로 권사 임직을 망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 용하실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으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 배우자 공민식 집사, 1남(무진), 1녀(채은)
-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차계향 권사

-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 배우자 Daniel, 2남(Bruce, Derrick)
-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9)



최란영 권사

-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맡겨 주시는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우자 최병웅 집사, 2남(규범, 규담)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황장은 권사

- 권사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조그만 희생이 상대방을 편하게 하고, 나의 사랑이 누군가를 웃게 하며, 나의 감사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삼박자가 잘 맞춰질 때 사역의 진면목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 배우자 황재연 집사, 2녀(지원, 지민)
-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예배
엘리아 특별 새벽기도회

억지로 깨워 부르신 사랑

억지로 깨워 나를 불러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새벽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시간은 몸도 마음도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수없이 많은 핑계와 타협의 목소리들이 이불 속에서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마치 등 떠밀리듯 억지로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그 새벽에 깨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새벽 세 시부터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 정갈한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찬양을 준비하는 성도들, 따뜻한 인사로 맞아 주시는 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었습니다. '아, 나는 억지로 왔는데 이분들은 이미 사랑으로 깨어 있었구나.'

그 새벽의 교회는 살아 숨 쉬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준비와 수고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도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억지로 떠밀려 온 것 같았던 새해 첫 새벽,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주님께 등 떠밀려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요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제 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실한 떨림이 담긴 선포는 저를 침묵의 예배자가 아닌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오랜만에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주님'이라는 이름 하나로 마음을 쏟아 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새해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음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흔들여 깨우신 이유, 억지처럼 느껴졌던 그 부르심이 사실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 새해의 새벽, 나를 먼저 기다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올해도 주님과 동행할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합니다.

송미선 권사



믿음의 고백

서로의 짐을 지며

김한요 목사님께서 전하신 송구영신예배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언급하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제 삶의 값진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죄이신 예수님께서 유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채찍에 맞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3년 전 저는 건강한 몸으로 간의 71%를 떼어 고모에게 기증하였고, 간경화 환자였던 고모는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게 허락된 작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희생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저는 부작용이 있었던 무통주사와 진통제를 거부하고 통증을 온전히 감내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마 27:34) 대신 고난의 잔(마 26:39)을 받으시며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는지

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난의 길을 지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건이 제게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고모를 살렸다고 말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간기증을 통해 고모께 수명 연장의 희망을 드린 것뿐이며, 생명과 때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유한한 생명의 연장에도 이런 희생이 따른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의 크기는 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고모는 제게 "네게 받은 생명을 갚지게 여기겠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 앞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을 통해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값지게 여겨야 할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영생에 늘 감격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숨쉬는 것도 힘들었지만, 당장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고, 우선 남편부터 헌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구글에서 찬양사역자 청빙 공고를 검색하다가, 예살 찬양 인도자 청빙 게시글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베델교회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지만,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온유와 겸손의 왕께 나아가 배우고,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제자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주의 몸 된 교회가 서로의 짐을 지며 은혜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주은 간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성김: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은혜/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온유/예배/말씀: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상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상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상채플: 이형석 목사
- 예상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상 위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장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미션의 날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베델교회는 'Go & See Mission 2026'을 주제로 특별한 미션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행해지는 미션의 날은 베델교회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축제입니다. 이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파송/협력 선교사들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초대하여, 선교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과의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복음 사역과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이 시너지를 이루어 폭발적인 선교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베델교회에 이번 미션의 날은 더욱 뜻깊은 의미를 담게 될 것입니다. 2월 1일 주일 예배 중에는 파송/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비전, 기도제목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더불어 기도, 1년 후원 또는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 헌신 작성서가 준비됩니다. 또한 예배당 앞 코트야드에서는 올해 계획된 단기선교팀들의 부스가 마련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단기선교 참여에 대한 사인업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일사: 2월 1일(주일) 1-3부
- ▶ 장소: 본당 및 코트야드
- ▶ 문의: 황세현 장로 (949)648-190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2월)	2/1:	①부-이상태	②부-여흥평	③부-양승화	④부-이유진
	2/8:	①부-이종교	②부-이국선	③부-김광식	④부-신영록
	2/15:	①부-임동억	②부-이선갑	③부-박성규	④부-김승진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2월)	1/31: 김동건	2/7: 김대웅	2/14: 천승현	2/21: 김영민
강단꽃(1,2월)	1/25: 장다윤	2/1: 김윤숙, 안상선	2/8: 윤성자, 이태형	2/15: 이경희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소화기내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김태원(내과), 간호사-김선미

선교후원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장)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3부 예배는 백석대학교 성종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MOD(사역 박람회) 오늘(25일)은 베델교회 사역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사역을 소개하고 섬기기로 다짐하는 사역 박람회가 열립니다.
일시/장소: 1월 25일(주일) 1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후까지, 본당 앞 코드야드
문의: 이완희 집사 (765)337-3513,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월 28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미션의 날 올 한 해 단기 선교, 선교 헌금 및 선교 기도 작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아울러 2026년에 펼쳐질 베델의 단기 선교를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별로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7면 참고)
날짜/문의: 2월 1일(주일), 황세현 장로 (949)648-1907

◆ 셀사역 1,1,1 캠페인 '1한 장로님이, 1한 가정을, 1일 년 동안!' 신청 해주신 장로님 가정에 셀에 속해 있지 않은 한 가정을 연결해 드리고, 1년 동안 작은 셀모임을 하는 캠페인에 장로님들을 초대합니다!
접수: 1월 18일(주일)-2월 8일(주일) 4주간, 본당 앞 부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조태현 목사 (949)431-8440

◆ 베델 봄학기 양육반 모집 2026년 봄학기 양육반 등록이 마감됩니다.
신청 기간/방법: 1월 25일(주일)까지, 홈페이지(bkc.org) 및 QR 코드
오리엔테이션: 양육반-1월 31일(토) 오전 7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이승호 집사 (714)510-1364, Rev. David Park (718)490-9931(Eng. Growth Class)

◆ 기도사역 연합 기도회 새해 첫 연합기도회에 모든 기도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을 초청합니다.
일시/장소: 1월 31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제7기 베델기도학교 모집 체계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기도의 영성을 배우고, 베델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기도의 용사로 세움받기 원하는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등록비: 2월 12일(목)-5월 14일(목) 총 14주, 20불(교재 포함)
문의: 이봉운 집사 (714)788-1235, prayer.school@bkc.org



◆ 새 주차증 발급 안내 은혜로운 주차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6년도 새 주차증 발급을 시작합니다. 본당 주차장은 발급받은 예배 시간(1부, 2부, 3부)에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후에는 바로 출차해 주시거나 차량을 비전파킹랏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문의: 주차 사무실, 김주홍 집사 (213)880-1022

◆ BYM 중등부(Qara) 찬양팀 인턴십 6-8학년 대상으로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고난주간 특별예배 기간동안 찬양팀으로 기쁨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현호승(Daniel) 목사 (949)677-4911



◆ BYM 중등부(Qara) PTA 모임 올해 진행할 사역의 방향과 계획(행사 및 프로그램, 수련회 등등), 그리고 멕시코 여름 단기선교 계획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월 25일(주일) 오후 1시-2시, 비전채플

◆ 베델워십팀 신입 단원 모집 주일예배 찬양을 섬기는 베델워십팀에서 2026년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여성성어, 각종 악기, 스태프, 자막, 미디어 등)
신청/문의: QR 코드, 안성희 집사 (857)654-6954



◆ 베델콰이어 특별단원 모집 4월 첫째 주 성금요일에 있을 '헨델의 메시아' 특별찬양을 위해 함께할 특별 콰이어 대원과 오케스트라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문의: 코드야드 부스 및 QR 코드, 오은옥 권사 (714)615-7096



◆ QTin 2월호 판매 QTin 교재를 매 주일 실내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를 날마다 말씀으로 더 채워가는 온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김광영 장로 (949)233-0677

◆ 축하해 주세요
- 이연중/심지혜 집사 가정에 이희주(Lydia)가 지난 1월 21일(수)에 태어났습니다.
- 공병주 전도사/김상희 사모 가정에 아들 공시우(Noel)가 1월 22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정윤길 성도님(정로즈마리 집사의 부친, 최준영 집사의 장인)께서 1월 20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Contains details for AWANA, church services, and news board members.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Jonghyun Sung

Beloved

3 John 1:1-15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

■ **Song in Response:** Yesterday, Today, Forever(Hymn 133)